

##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 현대미포조선, LPG선 3척 수주

현대미포조선이 Idan Ofer의 Eastern Pacific Shipping(EPS)으로부터 40,000DWT급 dual-fuelled LPG운반선 3척을 수주했다고 보도됨. 일반적으로 38,000CBM급인 표준 중형 LPG선보다 약간 큰 사이즈로 요청을 받았다고 보도됨. 표준 중형 LPG선에 비해 500만달러 프리미엄이 붙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됨. (선박뉴스)

## 선주들 66%가 탈탄소화 무대책

미국선급(ABS)가 입급 선주들 대부분이 탈탄소 전략을 세워놓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보도됨. 선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응답자의 3분의 2가 현재 탈탄소화 전략이 없다고 응답했다고 보도됨. 응답자 중 70%는 단기적인 솔루션으로 LNG를 주 연료로 선택했다고 보도됨. (선박뉴스)

## "조선산업 어려움 안다"...수출입은행, 지원액 5.2조로 늘려

수출입은행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조선산업에 대한 올해 지원액을 기존 3조8,000억원에서 5조2,000억원으로 늘린다고 보도됨. 27일 수출입은행에 따르면 방문규 행장은 전날 울산 조선업계 현장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알려졌다. (한국경제)

## 성윤모 "건설기계 수출 지원할 TF 구성... 단계별 맞춤 지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건설기계 분야의 수출 확대를 위해 민·관 합동으로 '수출 지원 태스크포스(TF)' 팀을 구성해, 수출 단계별 맞춤 지원을 하겠다고 발표함. 정부는 건설기계 지능화를 위해 올해부터 핵심기술·부품 개발에 320억원을 지원하고 있고, 다음 단계로 시스템 통합 및 실증사업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됨. (조선비즈)

## Vale must 'come back to normal' to save capesize market

브라질의 철광석 회사 Vale이 평균적인 생산량 수준으로 회복해야만 Capesize 운임이 회복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됨. 현재 Capesize 용선료는 4월 21일부터 일일 10,000달러 이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도됨. (TradeWinds)

## Box and bulk dominate as shiprecyclers gear up for slow restart

인도와 방글라데시의 Lockdown 조치가 해제되기에 앞서서 폐선업자들의 일감 확보를 위한 움직임이 시작되었다고 보도됨. 인도와 방글라데시 지역 봉쇄조치 해제가 임박했다는 기대에도 불구하고 스크랩 가격은 여전히 하향세라고 보도됨. (TradeWinds)